

광주·전남 체육 꿈나무들, 소년체전 '메달 사냥'

울산서 27일 개막...4일간 열전
 광주 1030명 메달 목표 71개
 역도 김제량 등 다관왕 도전
 전남 1167명 메달 101개 전망
 육상 최지우 등 금메달 기대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 레이스에 나선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7~30일 울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36개 종목 경기가 48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울산에서는 41개 경기장에서 29개 종목, 강원·경북·대구·부산 7개 경기장에서 7개 종목 경기가 열린다.

광주 선수단은 육상 등 32개 종목 1030명(선수 655명, 임원 375명)이 참가한다.

광주의 대회 목표는 모두 71개(금16, 은23, 동32)의 메달 획득이다. 지난 제51회 전국 소년체전 61개(금22, 은14, 동25) 메달보다 메달 목표를 10개 상향했다.

광주 첫 금메달은 태권도(41kg~45kg) 사정경기에서 이창민(상무중2)이 획득했다. 광주는 사전 경기에서 메달 9개(금1, 은3, 동5)를 획득, 청신호를 밝혔다.

광주는 27일 열리는 본경기에서 메달레이스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체육중학교 소년체전 결단식.

〈광주시교육청 제공〉

박소린(광주체육중 3년)이 자전거 여자중학부 1km 개인 추발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선정원(월봉중 3년, 스포츠클럽 선수)도 에어로빅 남자 중학부 금메달을 노린다.

다관왕에 도전하는 선수들도 눈길을 모은다. 김제량(광주체육중 3년)은 역도 여자중학부 +81kg급 3관왕, 정건우(광주체육중 3년)는 수영 남자중학부 평영 100m 2관왕에 도전한다. 구기종목에서 전국 최강 수피아여중 농구부는 지난 전국체전 우승에 이어 2연패에 나선다.

전갑수 광주시 체육회장은 "광주 대표선수로서 자긍심을 갖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최선을 다해 목표한 바를 이루기 바란다"며 "선수단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전남은 33개 종목에 걸쳐 1167명의 선수단(선수 727명, 임원 440명)이 참가한다.

전력 분석결과 전남 선수단은 모두 101개 메달(금 19개, 은 24개, 동 58개)을 획득할 것으로 전



전남체육중학교 소년체전 결단식.

〈전남도체육회 제공〉

망하고 있다. 대전종목과 기록종목에서 지난해보다 전력이다 소 상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표적 강세 종목인 레슬링과 육상 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역도, 수영, 자전거에서도 메달 획득이 유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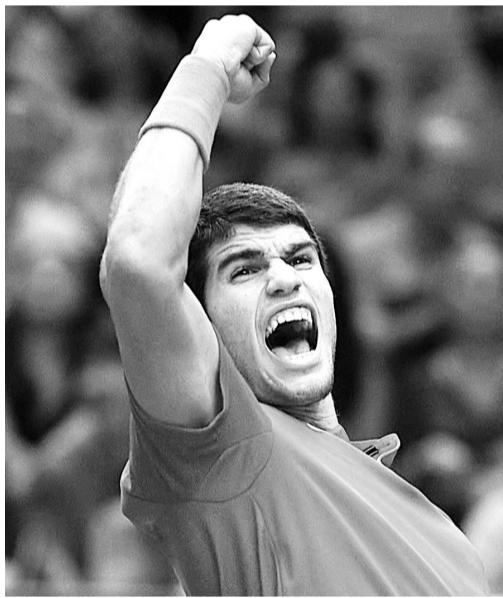
제51회 대회에서 육상 400m 금메달을 차지한 최지우(구례여중 1년)는 400m 2연패를 비롯해 4x400mR에서도 2관왕을 노리고 있다. 신수용(고흥중 3년, -89kg급)은 역도 인상, 용

상, 합계 3관왕에 도전한다. 지난 7일 제78회 전국종별배구선수권 남중부 우승을 차지한 순천팔마중학교는 이번 대회 금메달을 노린다.

송진호 전남도 체육회장은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꿈과 재능을 펼치기 위해 맘 흘린만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전남체육 꿈나무들이 선전하도록 도민과 전남체육인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클레이코트 차기 제왕은?

나달 없는 프랑스오픈 테니스 28일 개막...알카라스·메드베데프·루네 등 우승 후보



카를로스 알카라스



다닐 메드베데프



홀게르 루네

'클레이코트를 지배할 다음 제왕은 누구인가?' 올해 두 번째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프랑스오픈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개막, 15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 남자 단식은 예년과 완전히 다른 구도 속에서 치러진다.

사반세기 동안 남자 테니스계를 호령해온 '빅3' 중 둘이 빠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은퇴한 가운데, 올 초부터 엉덩이 근육 부상에 시달려온 라파엘 나달(15위·스페인)이 이번 대회 불참 선언과 함께 다음 시즌에 은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빅3 중 노바크 조코비치(3위·세르비아)만 프랑스오픈에 나선다.

페더러와 나달 없이 프랑스오픈이 치러지는 것은 1998년 이후 무려 25년 만이다.

프랑스오픈은 특히 나달에게 특별한 대회다. 나달은 이 대회에 18년 동안 개근하며 14차례나 우

승, '클레이코트의 제왕', '휴신' 등으로 불렸다. 어떤 선수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한 대회에서 나달만큼 많이 우승하지 못했다.

나달의 뒤를 이어 클레이코트의 왕으로 떠오를 후보자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같은 스페인 출신으로 '제2의 나달'이라 불리는 세계랭킹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다.

알카라스는 지난해 마이애미 마스터스와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잇따라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빅3의 뒤를 이을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다만, 최근 기세에서는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가 알카라스에게 다소 앞선다. 메드베데프는 프랑스오픈 전초전 격인 로마오픈에서 정상에서 서머 생애 첫 클레이코트 대회 우승을 이뤄냈다.

북유럽 테니스의 '쌍두마차' 홀게르 루네(6위·덴마크)와 카스페르 루드(4위·노르웨이)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루네는 빠른 발과 지구력에 강한 서브까지 겸비

한 20세의 어린 나이에 톱 레벨 선수로 떠올랐다. 루드는 나달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운영하는 '라파엘 나달 아카데미'에서 테니스를 배웠다.

그는 지금까지 투어에서 10차례 우승했는데 그중 9개의 타이틀이 클레이코트에서 따냈다.

메이저 통산 우승 횟수에서 나달과 22회로 동률을 이루는 조코비치는 신기록 달성에도 도전한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계 1위이자 2020년, 지난해 대회 우승자인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의 통산 3번째 우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윌블던 우승, 올해 호주오픈 준우승을 차지한 강 서버 엘레나 리바키나(4위·카자흐스탄)와 올해 호주오픈 우승자 아리나 사발렌카(2위·벨라루스)가 시비옹테크와 3패전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남자 홍성찬(세종시청), 여자 한나래(부천시청), 장수정(대구시청)이 단식 도전에 나섰지만, 모두 예선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대한테니스협회는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진행한 2023 빌리진킹컵 플레이오프(PO) 대진 추첨 결과, 한국 여자 테니스팀이 오는 11월 브라질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브라질과 PO 승부 펼칠 한국 여자 테니스 대표팀. /연합뉴스

한국 빌리진킹컵 PO서 브라질과 격돌

대진 추첨 결과 11월 원정경기

한국 여자 테니스의 2023 빌리진킹컵 플레이오프 상대가 브라질로 결정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진행한 대회 플레이오프 대진 추첨 결과, 한국이 오는 11월 브라질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과 브라질의 플레이오프는 10~11일이나 11~12일, 이틀에 걸쳐 5전 3승제(4단식 1복식)로 치러진다. 첫날 단식 2경기, 둘째 날 단식 2경기과 복식 1경기가 진행된다.

한국은 플레이오프에서 브라질을 꺾으면 2024 빌리진킹컵 16강 본선 진출 전 마지막 관문인 본선 진출전에 오르고 지면 지역 1그룹 예선으로 다

시 내려간다.

한국은 브라질과 역대 전적에서 패배 없이 1승을 기록 중이다. 1985년 일본에서 열린 월드그룹 준결승에서 2-0으로 이겼다.

여자 테니스 국가대표전인 빌리진킹컵은 세계 16강에 해당하는 본선, 본선 진출전, 본선 진출전에 나갈 팀을 결정하는 플레이오프와 지역별 그룹 예선으로 단계가 나뉘어 치러진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본선진출전에서 패한 국가 및 각 지역 1그룹 예선을 통과한 국가가 경쟁한다.

한국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3 빌리진킹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예선에서 조 2위에 오르며 25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 2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3관 인어공주, 아기공룡 둘리: 열음별 대모험 리마스터링
- 4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5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 6관 인어공주
- 9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7관 싸네카를 사슴의 왕, 존 워 4, 드림,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 8관 싸네카를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스템의 문단속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